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07

기획특집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포커스

육량 등급기준 개정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1년 농가의
대풍과 희망으로 이뤄낸
맛있는 건강한 우리농산물



C.O.N.T.E.N.T.S

기획특집 02-06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 지상중계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 한우농가의 외침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 17만 한우농가의 요구

파워인터뷰 07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포커스 08-09

육량 등급기준 개정

Zoom-In 10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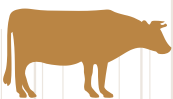
Information 11

매주 금요일은 '한우 먹는 날'

Information 12-14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15



17만 한우농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만6천여 한우농가가 12일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부를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빗물은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은 마음의 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무차별적인 축산물 수입으로 한우소비둔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족산업이라던 '한우'가 그래서 위기입니다. 한우암소 20만마리 수매, 도태장려금 지급,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확대 대책, 한우가격 연동제 즉시 실행 등 17만 한우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기획특집 I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지난 12일, 곳은 날씨에도 전국 1만6천여명 이상의 한우농가가 여의도공원에 모여 수입개방에 몰두한 채 한우가격 폭락, 생산비 상승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에서 여의도공원을 가득 메운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쌓여 있는 울분을 토해내며 생존을 위한 요구사항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생존위한 요구사항 한목소리로 촉구

한우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당국은 예산 확보의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구체역을 겪으면서 정부와 언론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초기대응미흡은 뒷전으로 하고 축산농가



장맛비 속 강행한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1만6천여명 운집
한우암소 20만마리 수매 등 한우산업 회생대책 수립 요구

한우농가의 분노, 폭우도 막지 못했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의 안일함과 부도덕함을 내세워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만들고, 정부는 여론을 힘입어 악성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마련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축산물이 수입돼 한우소비둔화는 극에 달했다.

구제역 이후 축산업 재건대책 뒷전

결기대회에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수입 망령에 빠진 이 정부가 구제역 이후 축산업 재건대책은 뒷전인 채, 축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을 빌어 축산농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사료값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인기 국회농식품부 위원장(민주당)은 정부에 축산업 회생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회생대책에 따라 당 차원의 FTA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제까지 외국 축산물 수입으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아무리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농업을 살리지 못하면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줄지에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

또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 중 축산업허가제에 대해서는 시설정비 등의 문제로 도입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제역 피해보상금을 시가의 100%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기대회는 한우농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고 아울러 17만 한우농가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

 기획특집 I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한우농가의
외침

“한우 가격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농가부터 살리고 선진화대책 · 가격안정 대책 우선 시행 촉구

◆ 정호영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

“지금 같이 소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축산업선진화 대책 시행은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사육농가부터 살리는게 급선무이며 유예기간을 두고 농가가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호영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은 소리쳐 주장했다. 하물며 정부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은 질병 양성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백신 비용까지 떠안긴다는 것이 주요골자라 축산업 재활보다는 축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회장은 이어 “정부의 잘못으로 구제역이 확산됐는데 백신비용을 농가에 전가하는게 말이 되냐”며 “지금 한우농가에게 필요한 것은 농가를 옥죄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아니라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다”라고 성토했다.



100%보상한다더니 보상기준 계속 변경 사료값 너무올라 사육할수록 손해

◆ 서재훈 한우협회 경기 남양주시 지부장



“올해 초 농장소독시연회를 한다며 유정복 전 농림부 장관이 남양주에 왔을 때 직접 찾아가 물었더니 보상금은 100% 지급한다고 푹푹히 들었고 대통령 또한 100% 시가반영을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니까? 정부의 약속만 믿고 추운 날씨속에도 묵묵히 소독하며 지켰지만 100% 보상금 지급은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구제역의 여파로 한우만 210여두 매몰처분한 서재훈 지부장은 100%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 결기대회 연단에 올랐다.

서 지부장은 정책당국이 조속히 보상체계 기준을 정해 농가가 배신감을 들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정부가 약속했던 100% 보상지급을 촉구했다.

정부, 구제역 사태 무릎꿇고 사과 폭락한 한우가격 대응책 마련을...

◆ 김현권 한우협회 경북 의성군 지부장



“구제역은 국내 법정 1종 전염병인 동시에 OIE(국제수역사무국)도 빠른 확산과 피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A급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애초에 국내에 없던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된 것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은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백신접종시기 등을 조정하지 못한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요?”

김현권 지부장은 구제역이 철통과 같은 방역조치를 했던 국립축산과학원도 피해가지 못한 질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측에서 구제역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축산농가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폭락한 한우가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통제가 잘 되던 구제역이 이번 정부에서는 재앙으로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한우농가의
외침

“농가 생존권 보장... 정부 가격안정대책 절실”

소값 안정화 안되면 산업자재 흔들려 농가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 김충완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

“한우 가격에 농가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지금 한우농가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농가의 아픔을 헤아려야 합니다. 소값 하락으로 가슴아픈 우리의 심정은 모른 채 FTA협상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한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김충완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

이어 “한우농가는 지난 겨울, 명절도 포기한 채 방역에 집중했지만 돌아온 건 한우값 폭락이라는 고통뿐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정부는 물에 빠진 한우농가를 수렁으로 더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줬으면 합니다”라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농축산물 가격 오르면 낮추기 ‘급급’ 한우 값 폭락엔 무대응 일관 ‘분통’

◆ 강원 평창 이태천 농가



“지금 소가 사료를 먹는게 아니라 사료가 소를 먹고 있대요. 소를 팔아도 사료값 빼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지난 해 구제

역 발병 후 온 힘을 다해 소를 지켰는데 기쁨 보단 허탈함 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귀농한 건 아닌데...”

깃발을 들고 선 젊은 농군은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했다. 귀농 후 10년을 농사와 소를 키워왔지만 해마다 사료와 농자재 값은 크게 오른 반면 소 값과 농산물 값은 10%가 채 오르지 않아 지금은 생계조차 곤란한 실정이라고 한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에서 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관세 수입 등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하는데 한우 값이 폭락한 지금 정부에서 나서 한우 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하루에 몇 번씩 한우사육 포기 고민 농가 배려 전혀없어 ‘FTA 체결 반대’

◆ 전남 보성 김정숙 농가



“소 값이 바닥을 치는데 농협도 사료 값을 올렸어요. 2년간 아침, 저녁으로 자식 돌보듯 했는데 이젠 돈 때문에 소 키우는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소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집회에 나온 김정숙 씨는 최근 하루에 몇 번씩 한우 사육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에서 FTA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라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기약도 할 수 없어 소를 키우는 자체가 불안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사료 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데 각 국과 FTA를 체결하며 농가를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FTA를 발표시키는 등 농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특집 | 한우농가 총 결기대회

17만 한우농가의 요구

지금 우리 한우산업은 지난해와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값이 반토막나면서 적자를 보면서 소를 팔아야만 하는 현실에 있다. 대부분의 한우농가가 치솟는 사료값에 커가는 소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아직 입식조차 못하고 빈 축사를 지키고 있는 한우농가의 어려움과 소값 폭락으로 출하를 하지 못한 한우농가의 고통을 더하면, 한우산업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앞에 정부에서는 구제역으로 정부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뽐족한 대안이 없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 원인이 불분명한 구제역 때문에 우리 한우농가가 구제역의 멍에를 짊어지고, 보상 문제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대책도 질병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양성농가 보상금 삭감과 백신비용 자부담은 현재 한우산업 상황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축산업 청정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또 최근 정부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 개방은 구제역으로 폭탄을 맞은 우리 한우산업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물가안정에 혈안이 되어 축산업의 붕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전국 17만 한우농가를 비롯, 농촌의 대표산업인 축산업이 무너지고, 농촌과 농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한우농가는 단결된 의지로 한우산업 회생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한우암소 20만두 수매, 도태장려금 지급

- 정부에서 과잉물량 암소 20만두를 수매
- 수매물량은 시장에서 격리후 가격 안정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
- 적정 사육두수 유지 위한 도태장려금 지원

2.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료값 대책 마련

- 한우가격 하락으로 자산가치 하락, 사료자금 상환 불가
- 상환기간 연장 및 사료값 안정화 대책 마련
- 농협과 사료업체의 사료가격 인하

3. 한미 FTA 결사반대

- 쇠고기 시장 개방 반대
- 선 안정화 대책 마련, 후비준

4.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확대 대책

-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한우급식 확대
- 군급식, 단체급식 한우 확대
- 자가도축 허용

5. 한우가격 연동제 즉시 실행

- 한우 산지가격에 연동한 판매가격 시스템을 도입
 - 생산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
- 입법 가능하도록 기준 제정

6. 축산업 선진화 대책 전면 수정

- 보상금 감액 및 백신비용 부담 반대
-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파워 인터뷰 |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한우암소 자율도태 확대... 송아지 생산마릿수 감축

현장중심 기술개발 · 인재육성...경쟁력 키울터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에 권찬호 전 경북대 축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명된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그를 만나 한우를 포함한 한국 축산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축산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확대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로 3~4년후의 한우시장을 미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FTA 대책 가운데 역점돌 사안이 있다면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 단기피해보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 가축질병 조기 근절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무병 종축 공급, 농가 교육 및 질병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소비 단계별 낭비요인 발굴·개선과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적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겠다. 물론 향후 FTA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축산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보완하겠다.

— 한우농가에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축산업은 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기술교육, 경영기법을 통해 축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록 짧은 재임기간이나마 좋은 인재를 육성하고 한우산업을 포함한 미래 축산업을 일구기 위한 물꼬를 터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 한국 축산의 현실을 진단해 달라

축산업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농가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해 농림업 생산액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업농가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업농 사육비중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양적 성장에 비해 밀식사육으로 인한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향후 임기동안 어떤 축산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 신뢰받는 축산, 존경받는 축산을 만들고 싶다. 생산자 중심의 대형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물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 축산물 인증제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 특히 한우의 경우 암소개량과 출하시기 단축, 암소 분만간격 단축, 송아지 폐사율 감축, 조사료 급여확대 등을 통해 최대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겠다.

— 한우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한우암소 자율도태 확대를 통해 송아지 생산마릿수를 감축하겠다. 우선 저능력우 및 노산우 등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에 대한 자율도태를 유도하고 농가에 사육마릿수, 가격 전망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 또한 이력제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천안연암대학 축산계열 교수, 산학협력단장, 부학장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한국조지사료학회 부회장,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학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개정 등급판정제도 적용 시 농가 수취가격 더 떨어질까” 우려

10월부터 육량등급기준 개정, 사양관리 변경 시급

한우가격 회복될때까지 적용 최대한 연기해야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10월부터 소도체 육량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 사유는 불가식 지방 생산량을 소 한 마리 당 5%(100kg미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고기량(육생산성)을 늘려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위의 수치대로 계산한다면 62.7 미만 상향조정 시 마리당 평균 2.9kg의 불가식 지방이 감소하며 2단계인 63.3미만 상향조정 시 2.4kg이 추가적으로 감소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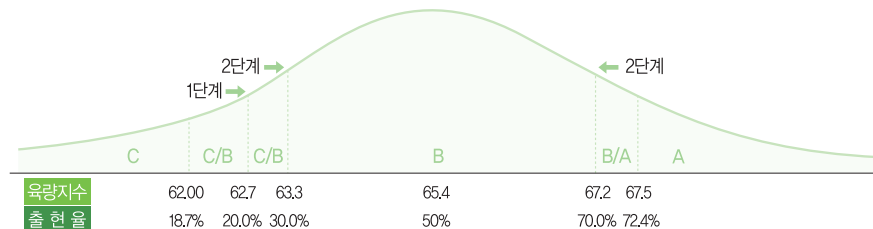
월 28일 공청회를 통해 쇠고기 생산성 향상과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하고자 추진한 등급개정안이 협회의 반대로 육질개정은 보류하고 육량등급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자료출처 : 축산물 품질평가원 〉

〈 표. 소도체 육량등급 변경안 〉

현행		➤	1단계 : 2011. 10. 1부터		➤	2단계 : 2013. 1. 1부터	
육량등급	육량지수		육량등급	육량지수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50이상		A	67.50이상		A	67.20이상
B	62.00이상~67.50미만		B	62.70이상~67.50미만		B	63.30이상~67.20미만
C	62.00미만		C	62.70미만		C	63.30미만

〈 그림. 적용단계별 육량지수 및 예상 출현율 〉



육량지수 = $68.184 - [0.625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0.130 \times \text{배최장근단면적(cm)}] - [0.024 \times \text{도체중량(kg)}]$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함)

※육량지수 : 도축한 소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정육(고기)량의 비율을 지수화한 수치



등급개정에 따른 사양기술

이제까지는 육질등급에 치중한 한우 사육방법으로도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질등급은 물론 육량등급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도체 중량이 증가할수록 정육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비육후기로 갈수록 정육량의 증체보다 지방량의 증가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체중 증가와 사육기간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고 사육기간이 늘어날수록 정육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배최장근 단면적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정육율에 반비례 관계가 있는 지방 축적이 증가되면서 육량지수가 낮아지므로 육량등급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종축선택과 사양관리 기술 개발 필요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방법은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소 소홀하게 여겼던 육(肉)생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하지방과 근간지방 축적을 줄이면서 근내지방도를 높여야 하는 사양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등급기준 개정에 따라 한우사육농가는 현재의 출하체중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등지방 두께를 얇게 하며 등심단면적을 넓히는 종축선택과 사양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도체중량 444kg가량의 한우 거세우에서는 등지방 두께를 16mm이하로 낮추면서, 등심단면적을 92cm² 이상으로 높이는 등급판정 항목별 사양목표를 설정하고 사양해야 한다.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밀소를 확보하고 근내지방 형성과 관련한 메카니즘 이해와 사육기술 접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소, 육량등급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

등급기준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2년 7월 처음으로 소도체 등급판정이 시작된 이래, 1997년 12월과 2004년 12월에 육질등급(1*등급, 1**등급 신설) 개정을 비롯해 육량등급기준 개정 등을 합하면 5차례에 걸쳐 소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이 개정됐다. 품평원은 이번 등급기준 개정을 통해 육량등급 개선과 장기비육에 따른 지방 과다형 고급육 생산을 억제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기준으로 농협서울축공 상장분 한우거세우 67,697마리의 분석에 의하면 개정 시 육량 B와 C등급의 kg당 평균 경락가격은 126원과 237원씩 상승하지만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선이 62.0에서 62.7로 상향 조정 시 17,215마리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다. 등급하락 시 kg당 가격차이는 종전 1,321원에서 1,210원으로 111원씩 줄어들어 두당 143천원 하락한다. 육량등급별 평균 경락가격은 개정에 의해 약간씩 상승함에 따라 농가에서 한우 거세우를 출하할 때 두당 기대(확률)수취액은 종전 6,902천원에서 6,896천원으로 두당 4,779원 정도 낮아진다. 반면 평균경락가격은 B등급이 126원, C등급이 237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도 가격 기준)



Zoom-In |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가격 안정화에 총력

관리위 개최...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 전개

한우자조금은 지난 7일 대전에서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소값 하락 장기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기존사업전용과 예비비를 포함해 32억9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우가격 동향

최근 유통업체 및 농·축협 할인으로 더이상 하락이 멈추고 보험세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가격은 큰압소 388만원(6월 30일, 생체 600kg 환산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대폭 하락했으며 도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4.9%하락해 농가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반면 소비는 할인판매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소비자 가격이 요지부동으로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지역간담회를 진행해 접수된 현안을 검토, 향후 자조금 주요사업을 소값안정화로 정하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단체물량 확대 및 가격연동제 시급

소값안정화를 위해 한우자조금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집행하고자 한다. 우선 한우고기 단체 급식 물량을 확대하고, 기존 1인당 12g(1일)에 불과한 군납물량을 5개월간 33g(총 688톤)으로 확대시키고자 정책당국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격 연동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6,500만원 배정하고 자가도축 허용을 건의해 단기적으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한우소비촉진 역점

또한 한우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계획한다.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날로 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7월 중 범국가적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소값 안정 및 소비촉진에 역점을 둔

홍보를 진행하고자 모든 행사 및 이벤트, 교육은 소값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조속히 기업체 연계 특별판매 및 농·축협, 마트 등과 함께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농협은 270개소 농협 판매장에서 불고기 756톤 물량을 16,900원에 판매를 제안, 자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할인가격 폭이 미비하며 할인가격 책정 논란을 빚어 향후 가격조정 및 시행시기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 암소도태운동 농가참여 절실

소값 안정화는 소비활성화와 함께 농가의 적극적인 계도도 절실하다. 한우자조금은 저능력우 암소 자율도태 운동을 추진해 암소위주 10만두 도태 및 대농가 1가구 10%줄이기 캠페인을 펼친다. 또한 한우 소비촉진 이벤트 및 한우관련 종사자 1kg 더 먹기 운동도 펼쳐 농협 임직원 및 전국 한우농가 주 1회 이상 한우고기 더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

조병임 서기관은 “정책적으로 사육두수 조절이 필요하다. 향후 현실적 조절 대책을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암소기준으로 계산하고자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웅 농협중앙회 부장은 “최근 붉어진 생축장 비육은 양축가 분양 및 위탁사육을 제외하면 2만두 가량으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본래 목적인 위탁사육과 우량암소기지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호경 위원장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암소소비대책과 함께 자율도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체의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을 접어두고 범 한우업체가 화합하고 장기적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㉞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우 먹는 날'

한우 소비확산 위해 소비자단체도 적극 참여

24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한우먹는날' 행사 진행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는 한우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소비자에게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을 적극 알리기로 나섰다.

최근 산지 소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을 '한우먹는 날'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우 모색이 금(金)과 비슷하다는데서 착안, 주말과 일요일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금요일

을 '한우먹는날' 지정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난 6월 24일 과천 소재 '청학동'에서 '한우먹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음식점 대표들이 함께 가격 인하된 한우메뉴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한우자조금, 한우협회, 농협중앙회는 한우생산자의 어려움을 축산기업중앙회에 전달하면서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정육점 등의 한우가격 인하를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매주 금요일 한우먹는날에 동참과 한우고기 사용을 호소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한우먹는날 행사와 함께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우 원가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



"한우먹고 1억원 경품받자"

7월 한달간 '한우사랑 노란우체통 경품이벤트'

한우자조금은 소값 안정 및 여름 비수기 한우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7월 한달간 한우사랑 노란우체통 경품이벤트를 개최한다. 한우사랑 노란우체통 경품이벤트는 20%까지 한우가격 할인을 실시하는 전국 1만5천여개 정육업소 및 농협 목우촌 정육점 매장, 한우판매인증점(정육점형 식당)에서 진행되며 한우고기를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응모권)에 구매영수증을 넣어 노란우체통에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발표는 8월 12일 추첨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총 경품액은 1억원으로 1등(2명)에게는 황금소 50돈, 2등(5명)은 황금송아지 10돈, 3등(10명) LCD 32인치 TV, 4등(200명) 한우구이세트 2.5kg, 5등(300명)은 한우갈비세트 2kg을 증정한다.

한우자조금은 "대형할인마트 행사에 이은 식육판매점 경품이벤트를 통해 평소 한우를 사랑해주는 구매고객에게 한우 할인을 통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7월 한달간 한우 소비를 촉진하여 한우농가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기업중앙회와 함께 2009년 2,500여개 업소, 2010년 8,000개 업소와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올 해에는 15,000여개 업소와 함께 한우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정육점이 늘어 범국민적 한우 소비촉진축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한우 판매행사로 범국민 소비촉진 호소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가 열렸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6월 16~17일 양일간 청와대 연풍문 2층 로비에 판매 행사장을 마련하고 청와대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우정육 및 보신세트, 선물세트 등을 할인 판매했다.



청와대에서 한우고기를 할인 판매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최근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로하고자 판매를 진행했다. 특히, 청와대가 앞장서서 한우 소비촉진에 동참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우송아지와 함께하는 사진찍기 체험 녹색 식생활교육 박람회 한우협회 부스 인기



한우자조금은 지난 1일부터 3일간 2011 녹색 식생활 박람회에 참가해 어린이 및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우를 홍보했다. 한우자조금은 부스내 '한우송아지 포토존'을 마련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특히 한우 울음소리가 나는 송아지 실제 모형을 처음 접한 어린이들은 한우부스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학부모들도 한우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한우 포토존이 인기를 끌었다. 부스를 방문한 어린이에게 한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우캐릭터 저금통을 증정하였으며 한우불고기 시식회를 진행해, 어느때보다 많은 관람객에게 한우를 홍보했다.

부모, 어린이와 함께하는 한우알림순회공연 스타트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공연을 시작한 '한우 알림 순회공연(이하 한아름)'은 우리 한우에 대해 흥미로운 인형극을 선보여 어린이 및 일반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한아름'은 4마리의 한우들이 어린이와 함께 명랑운동회를 진행하면서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꾸민 흥미로운 인형극이다.

올해 자조금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한아름' 공연을 통해 우리 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녹색 식생활 교육 박람회를 시작으로 피서지 및 유원지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아름 공연을 통해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우먹고, 올레길 걷고 할머니 함께 여행가요~

한우자조금,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제주 공개방송 협찬

한우자조금은 MBC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에서 '할머니, 함께 여행 가요!'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제주 공개방송을 협찬, 할머니와 손자·녀들의 여행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할머니와 손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여행할 기회가 적은 이들 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 총 27가족, 68명이 초청돼,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첫째날은 제주 서귀포시 '흑한우명품관'에서 제주 한우로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맛있는 한우를 손주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한우를 방목해 사육하는 한우농장을 방문한 후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공개방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자의 편지낭독시간을 가져 참가한 한 중학생은 "평소 자주 짜증만 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잘해드리는 모습을 보며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다시 올지 모르겠다"며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06.04 QTV 예스웨프시즌2



차세대 글로벌 셰프 선발 프로젝트인 '예스웨프시즌2'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결요리 종목으로 한우를 선정해 다양한 요리대결을 펼쳤다. 한우의 맛을 최대로 살리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미한 요리를 선보였다.

07.02 제주MBC 전국시대 06.13 제주MBC 뉴스데스크



한우자조금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조손가정 제주여행을 협찬하며 한우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방송과 연계해 자세한 행사내용을 소개하며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했다.

PPL

07.03 MBC 고향이 좋다



강원 영월의 한우농가를 찾아 철저한 방역과 쇠고기이력제를 바탕으로 간간하게 사육하는 시스템을 알리고 최소와 흑우도 소개했다. 또한 세밀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급판정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1+, 1++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한우어플리케이션과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우전문점을 알렸다.

07.04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즐기자~한우반값시대'를 주제로 한우농가가 주최한 한우무료시식회 및 반값할인행사와 대형마트에서 성황리에 판매되는 할인행사를 소개했다. 또한 한우농가를 찾아 어려운 사육현실과 떨어진 한우가격을 알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홍보했다.

올 여름엔 맛있는 여행가자

한우 114 온라인 이벤트 실시



한우 114에서는 이번 여름휴가기간 동안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8월5일까지 진행한다. 한우와 떠나는 맛있는 여름휴가를 등록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춘 누리꾼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여름휴가 등록은 계획한 여름 휴가지와 휴가지 지역 한우식당이름 및 연락처를 기입해 등록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청소년
맛체험

&

농가 및
소비자 교육



청소년
맛체험



06. 03 경남 창원 명지여고



06. 04 강원 평창고



06. 09 충북 영동초



06. 24 서울 오남중



06. 29 전남 보성고



07. 06 충남 천안 용곡초

농가 및
소비자 교육

교육기관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한우농가 기술교육	06.28 ~29	여성한우아카데미 7기교육	한우자조금 역할 및 사업, 한우사육 및 산업동향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소비자 대상홍보 교육	07.07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회원	소비자에게 유익한 한우고기 우수성 및 쇠고기 이력제 등 교육, 한우고기 저지방육 시식행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07.07	전국주부교실 대구광역시지부 회원	한우고기 우수성과 등급제 및 이력제 교육, 저지방육 불고기 시식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07.09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회원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 노력 홍보, 시식회를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		07.11	무학초등학교 학생	미래 소비 주체인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식육선택의 올바른 방법 전달, 저지방육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방법체험으로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 기여



06. 28~29 여성한우아카데미



한우소식 이모저모

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5일로 단축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시 반드시 귀표 부착

지난 6월 22일부터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는 5일 이내로,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이력제 신고기한 단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해, 신고기한 단축을 위반한 축산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 단계정보는 이력제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신고기간단축이 시행되면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이 신속히 파악가능해 진다.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안내

- ▶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
- ▶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
- ▶ 육우의 귀표는 7일 이내에 부착해야 하고, 한우는 자금과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출생, 거래, 폐사): 30일(기존)→5일(변경)
-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30일(기존)→7일(변경)
- ※ 귀표 부착기한내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

한우고기 '맛'으로 승부한다

농진청, 한우고기 연도(軟度) 관리 시스템 현장 적용

앞으로 소비자들은 부위와 조리방법별로 원하는 맛에 가장 근접하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맞춰주는 서비스를 받아 한우고기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에 부위별, 요리방법별로 소비자의 식미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맛 점수를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리방법과 부위별 연도(軟度) 관리 시스템(맛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4년간 전국단위 4,6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관능평가를 실시해 쇠고기 맛 결정가중치(연도 55%, 다즙성 18%, 향미 27%)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한우고기 10개 부위에 대해 총 540개 맛점수 계산식을 산출하고, 전산프로그램화해 자동으로 맛점수를 부여하며 점수에 의해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표시토록 했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조수현 박사는 "한우고기 연도(軟度)관리시스템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다양한 품질정보 제공과 선택구매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은 소값 안정 및 여름 비수기 한우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축산기업중앙회 산하 전국 1만5천여개의 정육업소 및 농협 목우촌 정육점 매장, 한우판매인증점에서 경품이벤트를 7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한우고기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에 구매영수증을 넣어 노란 우체통에 넣어 응모하면 됩니다. **총 경품액 1억원의 이번 경품이벤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1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6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정임(전북 고창군), 박시덕(강원 홍천군), 임선주(경북 구미시), 이동진(충남 태안군), 김순환(서울 강동구), 이완희(충북 청원군)

인증점 소개

고령명품한우

전화 : 054-954-1131
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592-1
메뉴 : 생등심(130g) 20,000원, 황소한마리(130g) 7,000원



고령명품한우의 고기 맛을 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고 말한다. 한우 생등심130g에 20,000원이면 시골에서는 그리 싼 편이 아닌데도 손님들이 그리 말하는 것은 넉넉한 인심 때문이다. 한우 고기를 정량과는 상관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밑반찬과 함께 육즙이 어우러져 한우 고기의 향을 배가시킨다. 대개 멀리서 큰 마음먹고 찾아오는 손님들인지라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분주하며, 배불리 먹고 식당문을 나서서 손님들의 손에는 정육코너에서 산 한우 고기 한 보따리가 어김없이 들려있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출 제8권 제19호 통권 제69호 발행일 2011년 7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화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I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한우값 회복은 소비촉진도 중요하지만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는 길만이 한우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송아지를 생산하고 암소 도축이 줄면
한우값은 2015년 이후에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암소도축이 크게 줄고 인공수정이 늘고 있어 한우두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 한우농가가 먼저 앞장 섭시다.

- 암소도태에 솔선수범 합시다.
- 인공수정을 가급적 억제 합시다.

■ 한우자조금 · 한우협회 · 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범국가적 소비촉진에 매진하겠습니다.

- 농협판매장, 유통업체, 정육점, 음식점이 생산자 단체의 할인 행사로 소비층을 넓혀 한우두수를 줄이겠습니다.
- 군납 · 학교 급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매주 금요일 '한우고기 먹는 날'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기업체의 집단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